

이슈브리핑 vol.330 2025년 12월

ISSUE BRIEFING



전북 생태관광 2.0! 생태경제 창출을 위한 도전과 과제

연구책임

천정윤 책임연구위원

연구진

김보국 수석연구위원

배진아 연구원

요약

- 생태관광(Ecotourism)은 생태자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적·경제적·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전북에서도 활발히 추진되는 정책이다. 특히 최근 생태관광 핵심 트렌드인 ① 지역 특화자원 경험, ② 분야 간 융합, ③ 기후·생물다양성 위기 대응, ④ 생태관광 대상 확대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된다. 전북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출범과 함께 생태관광 핵심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추진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.
- 전북은 지난 10년간 ‘생태관광지’와 ‘천리길’을 조성하면서 하드웨어 구축과 에코메니저 양성,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해왔으며, 주민협의체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다. 이처럼 지난 10년간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완주자 증가 등 성과도 있었지만 하드웨어에 치중된 사업과 시공간 연결성 부족, 지역사회 경제효과 창출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.
- 민선 8기에는 자원 간 연결과 생태경제 창출을 위한 ‘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’이 추진되고 있으며, 향후 10년간의 생태관광 추진을 위한 10대 과제를 담고 있는 ‘전북자치도 생태관광+ 기본계획(‘25~‘34)’이 추진되고 있다. 이와 함께 전북의 생태관광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을 플러스(+)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.
- ① (신규수요 플러스) 최근 생태관광 수요를 반영하고 자원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차별화되고 고유한 전북의 스토리 체험
- ② (생태자산·공간구획 플러스) 핵심 생태자산(생물종 서식지)의 보전·복원을 추진하고, 핵심-완충-협력구역의 명확한 설정과 구역별 기능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
- ③ (연계사업·지원서비스 플러스) 체류시간 증대와 연계효과 창출을 위해 전북특별법 특구 및 기존 관광사업과 연계하고, 교통 및 숙박서비스를 개선하며, 축제·행사를 통한 홍보 활성화
- ④ (거버넌스 플러스) 전문가 참여 다층적 거버넌스로 정책 전문성·일관성 강화,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지역 필요·한계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, 마을협의체 자문과 정책참여 기회제공으로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
- ⑤ (통합 브랜드 플러스) 전북 생태관광 고유성·차별성 갖춘 통합 브랜드 구축으로 전북형 생태경제 창출 기여

Keywords Ecotourism, Trend shift, Ecological assets, Governance, Holistic branding

I 생태관광 트렌드 변화

- '생태관광(Ecotourism)'은 생태계 보전과 행위제한 중심의 기존 환경정책과 달리 생태자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으로 환경적·사회적·경제적 수용성이 높아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
 - 우리나라는 1990년대 자연관광·녹색관광에서 출발하였으며, 2002년 유엔의 '세계생태관광의 해' 이후 생태관광이 본격 추진되어 현재 40개소의 생태관광 지역(국가)이 지정·운용되고 있음(전북 4개소 지정)
- 전북은 '15년 시군별 생태관광지 조성에서 출발, 현재 12곳의 생태관광지와 405km의 천리길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, 민선8기를 맞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출범과 함께 에코캠핑 삼천리길과 전북 생태관광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미래 생태관광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최근 국내외 생태관광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최근 생태관광의 핵심 트렌드는 ① 지역 특화자원 경험, ② 분야 간 융합, ③ 기후·생물다양성 위기 대응, ④ 생태관광 대상 확대의 4가지로 요약됨
 - (지역 특화자원 경험) 우수한 생태자산을 단순 관람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생태계, 경관, 생물종 등 생태자산을 활용한 해설, 체험, 교육을 통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해짐
 - (분야 간 융합) 생태관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생태와 역사·문화, 생태와 환경교육, 생태와 지역 체류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으며, 이는 수요자들의

요구사항과 결합하여 장거리 걷기길, 마을 체험, 스포츠 체험, 문화 체험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

- (기후·생물다양성 위기 대응) 생태자산의 훼손은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생태자산의 보전과 훼손 방지 및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이 기후위기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음
- (생태관광 대상 확대) 공급 측면은 산림생태자원과 산악형 보호지역 중심에서 농경지, 도심 속 녹색공간, 연안·해양·섬 등으로 공간범위가 확대되고 있고, 수요 측면은 코로나-19이후 해외 관광객 유치(인바운드 - 동아시아권),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(50~60대) 유입이 중요해짐

- 생태관광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여 전북 생태관광의 그간 추진경과를 돌아보고 21대 정부 출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전북 생태관광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



〈그림 1〉 국내외 생태관광 핵심 트렌드와 반영 사례



전북 생태관광('15~'24) 추진성과와 한계

- (기반조성) 지난 10년간 '생태관광지'와 '전북 천리길'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험관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, 에코메니저 양성 및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, 주민협의체 구성 및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출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
 - (생태관광지/천리길 조성) '15년부터 12개 시군(부안, 전주 제외)에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생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'17년부터 14개 시군에 44개 노선 총 405km의 전북 천리길을 조성·운영
 - (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출범) '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'는 전북생태관광을 육성·지원하는 총괄 기관으로 사업발굴, 인력양성, 네트워크 기능을 하고 있음
- (성과와 한계)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의 참여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고창, 남원, 정읍에서는 마을 소득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으나, 하드웨어에 치중된 사업, 행정 중심, 시·군 연결성 부족, 지역사회 파급효과 부족 등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
 - (물리적 성과) 12개 시·군 생태관광지에 24개 생태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, 천리길 해설프로그램도 운영 중임
 - (사회적 성과) 활동가 133명('24년) 활동하였고 생태관광지에 마을사업을 위한 주민조직이 결성됨. 천리길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790건, 천리길 완주자는 193명에 이룸('24년)
 - (경제적 성과) 지속적인 탐방객 확보와 함께 고창, 남원, 정읍에서 마을소득이 창출됨. 특히 고창군(국가생태관광지)은 탐방객 수가 10만 명, 마을소득은 약 12억원('24년,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)을 기록함
 - (추진 한계) 점적 사업 추진으로 사업간 연결성이 부족하고, 생태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소득 증진사업 부족으로 탐방객 확대유인 부족 및 지역경제 파급효가가 약한 한계를 보임

〈표 1〉 전북 생태관광 추진현황

구분		전라북도 생태관광('15~'24)	
		생태관광지	천리길
기간		2015~2024	
개념 및 대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4개 시군별 대표 생태관광지 - 생태자산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 - 생태탐방, 연계관광이 가능한 곳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4개 시군별 걷기 노선 - 지역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 - 연계관광이 가능한 걷기노선
사업내용	하드웨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군별 마스터플랜수립 • 시군별 길 · 식재 정비 • 시군별 생태체험센터 운영 • 시군별 마을소득 공간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군별 해당 노선 걷기길 정비 • 생태 숲 조성(휴게공간 정비)
	소프트웨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설립 • 생태관광지 활동가(에코매니저) 양성 • 시군별 생태프로그램 운영 • 시군별 마을소득 조직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선 스토리 개발 천리길 해설사 양성 • 천리길 완주자 관리
성과/현황	물리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관광지 12곳 조성·운영 - 군산청암산, 익산금마서동, 정읍솔티 - 남원백두대간, 김제벽골제, 완주싱그랭이 - 진안지오파크, 무주반딧불이, 장수뽕봉샘 - 임실성수산, 순창장군목, 고창운곡람사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4개 시군 : 44개 노선 405km - 산들길 : 25개 노선, 220km - 해안길 : 06개 노선, 50km - 강변길 : 07개 노선, 80km - 호수길 : 06개 노선, 55km • 시군별 대표 휴게공간 조성
	사회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활동가 133명 활동('24년) • 생태체험 프로그램 48건 운영('24년) •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중심 광역 협력체계 구축 • 마을사업을 위한 주민조직 결성(고창, 완주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리길 걷기 브랜드 출범 • 완주자 증가(193명, '24년) • 천리길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건수 증가 (709건, '24년)
	경제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속적인 생태관광탐방객 확보 • 마을소득창출 : 고창 1,207백만원, 정읍 45백만원, 남원 75백만원('24년) 	-
한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기 조성방향 부족 • 하드웨어중심, 예산 및 집행액 편차 •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 부족 • 타분야(관광, 환경 등) 접목 한계 • 시군 단절, 지역사회 파급 미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리길 평가시스템 부재 • 하드웨어 조성 중심 • 걷기길 활성화 한계 • 통합홍보 및 안내 부족 • 시군 참여의지 편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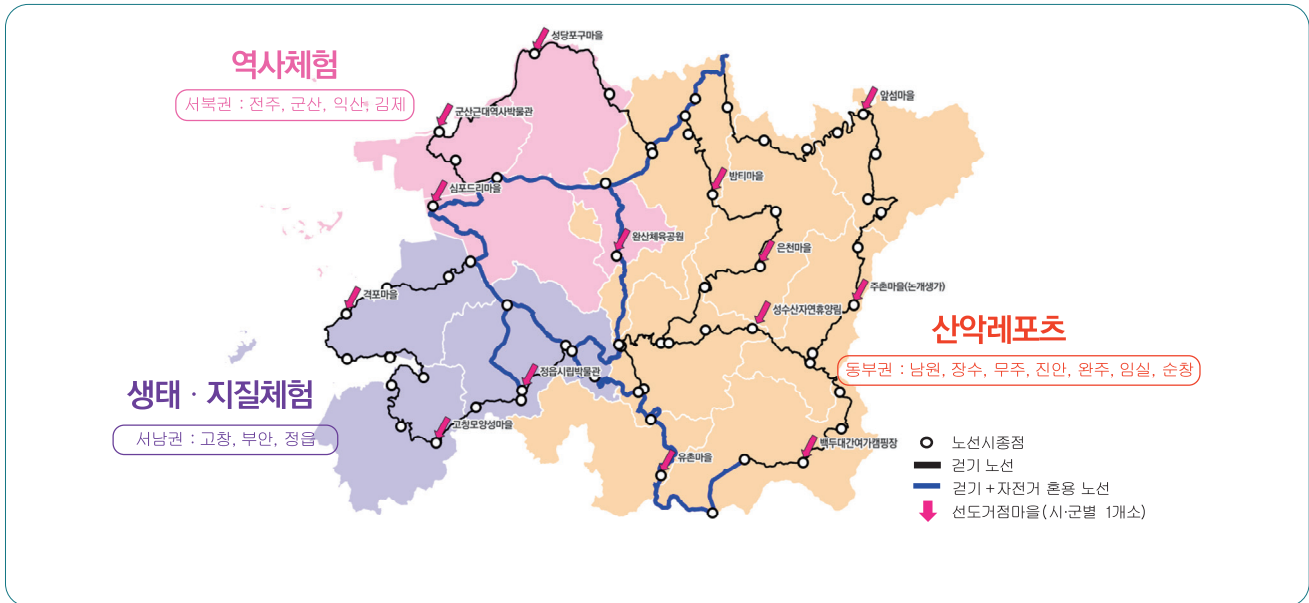
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('25~'30)과 전북 생태관광+('25~'34) 출범

○ (에코캠핑 삼천리길) 14개 시군의 생태관광지와 거점 마을, 시군 관광사업들을 연결한 총 길이 1,037km의 삼천리길을 조성하고, 60개 거점마을 육성을 통해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〈표 2〉 전북 삼천리길 주요 내용 추진 현황

구분		삼천리길
기간		2025~2030
개념 및 대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전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길이 1,037km 걷기길- 지점과 지점을 연결 : 생태관광지, 거점마을, 관광지를 연결- 노선과 노선을 연결 : 1코스 20km 내외, 국가 탐방로, 천리길, 마을길, 모두 수렴- 시군과 시군을 연결 : 시군과 시군 및 타 시도 연결. 국가 서해랑길, 지리산둘레길 연결
사업 내용	물리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길이 1,037km 걷기길 연결 (3개 유형 길 포함)- 걷기길 680.5km / 자전거길 326.9km / 맨발항토길 30km• 이정표, 종합안내판 등 신설 및 교체
	사회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체류형 관광을 위한 시군별 1개 대표 콘텐츠 발굴• 노선별 스토리텔링 구축, 생태관광지+주변 관광지 연계를 통한 체류인구 유입•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기능 및 위상 강화• 전북 생태관광지 + 천리길 결합된 통합 브랜드 창출- 기존 에코매니저, 천리길 해설사로 양분된 활동가를 -> 생태활동가로 통합
	경제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노선 시종점에 거점마을 조성 및 마을 비즈니스 창출- 기존 생태관광지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한 마을 비즈니스 확대• 체류기간 연장으로 지역 소비 경제 확대
추진 현황		하드웨어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정비 착공 : 8개 시군(군산, 익산, 남원, 진안, 장수, 임실, 고창, 부안)• 실시설계 : 2개 시군(정읍, 무주)• 실시설계 예정 : 3개 시군 (김제, 완주, 순창)• 미추진 : 1개(전주, 협의중)
		소프트웨어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인력보완 완료• 삼천리길 추진 자문단 출범 및 에코매니저+천리길 해설사 통합• 삼천리길 통합 BI 구축 완료

[전북 삼천리길 현황도]



○ (전북 생태관광+) 그간 추진된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계를 보완해 지역특화 생태관광의 브랜드가치를 증진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 '25년 「전북자치도 생태관광+ 기본계획(’25~’24)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

〈표 3〉 전북자치도 생태관광+ 기본계획 10대 추진과제

추진전략	추진과제(’25~’34)	기간	사업내용
삼천리길 연계 12개시군대표사업 개발 (광역화)	① 시군별 생태관광지 조성·운영	장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태관광+ 지역 조성 기존사업 강화형, 신규사업 창출형으로 지역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
	②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·운영	중장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에코힐링1번지 전북」 실현, 관계인구유입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 삼천리길+대표사업+거점마을의 단계적 개발 및 육성
	③ 전북 생태관광 사업 국내외 인증	중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확대 지역주민이 생태보전에 참여하는 생태관광지, 생태복원지역,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지역과 연계하여 자연공존지역(OECM) 지정

추진전략	추진과제('25~'34)	기간	사업내용
자연생태·역사문화·관광 접목한 새로운 생태관광 수요 (융복합)	④ 생물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	중기	• 생물문화다양성을 접목한 시·군별 특화 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• 전북자치도 생태관광프로그램의 개선과 활용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
	⑤ 마을비즈니스 사업 개발	장기	• (전북 생태관광 그린 결혼식) 생태관광 그린 결혼식을 지원함으로써 전북 생태관광의 홍보효과 제고 및 관계인구 증가에 기여 • (교통 및 숙박지원 서비스) 생태관광지 연결 교통 및 숙박지원
	⑥ 생태관광 페스티벌 등 국내외 행사 유치	중기	• 생태관광지 및 삼천리길 노선·거점마을과 연계한 생태관광 축제 개최 - 마을·기업 홍보부스, 생태관광 체험 및 정원가꾸기, 생태밥상, 굿즈
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현 (지역참여)	⑦ 전북 생태관광! 통합해설사 양성	단기	• 에코매니저, 천리길 해설사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 공동체 출범 - 해설의 범위 확장, 공인 해설사 자격 취득, 동행 프로그램 추진
	⑧ 생태관광 증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특례 추진	장기	• 생태계 보전, 생태자산 모니터링, 생태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, 활동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활동비 보전
민·관 협력의 생태관광 거버넌스 체계 (소통, 협력)	⑨ 전북생태관광육성 지원센터 확대 개편	단기	• 전북 생태관광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-시·군-마을-기업의 중간 역할 및 이해관계 조정.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, 삼천리길 운영 지원
	⑩ 생태관광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	단기	• 전북 생태관광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전문가자문단 운영 - 사업계획 수립, 시군 컨설팅, 사업평가, 자문단 결과 피드백



전북 생태관광+, 지역을 플러스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 제안

○ (신규수요 플러스) 최근 생태관광 신규 수요를 반영하고 자원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차별화되고 고유한 전북만의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함

- (수요변화 반영) 전통적인 생태자원 체험과 유소년 대상 생태환경교육에서 벗어나 '백패킹(Backpacking)', '워킹(Walking)', '러닝(Running)', '바이킹(Biking)' 등 다양한 신규 수요와 융합
- (생태·문화 융합) 지역이 보유한 전통생태지식과 역사 문화, 생태자산의 특성을 결합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조성, 마을별 테마를 보유한 정원 조성

○ (생태자산·공간구획 플러스) 핵심 생태자산 조사를 통한 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, 핵심-완충-협력구역 설정에 따른 구역별 명확한 보전 및 활용 사업 추진

- (핵심자산 보전) 멸종위기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, 지역 고유종, 깃대종 등 핵심 생물종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참여 모니터링, 생태자산 보전·복원사업 추진
- (핵심-완충-협력 공간구획) 생태자산 보전을 위한 핵심구역 설정, 핵심구역 생태자산 보전과 생태체험 교육을 위한 완충구역 설정, 마을 중심의 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, 숙박·먹거리·마을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구역 설정

○ (연계사업·지원서비스 플러스) 체류시간 증대와 연계 효과 창출을 위해 전북특별법 특구 및 기존 관광사업과 연계, 교통 및 숙박서비스 개선, 축제·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 활성화 필요

- (연계사업 추진) 전북특별법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, 문체부 관광사업지구, 산림청 정원사업, 국토부 도시공원 등 연관사업과 연계를 통한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 개발 필요

- (교통·숙박 지원서비스 개선) 시종점과 생태관광지 연결 교통서비스 확대, 민간기업 참여 숙박 및 세탁지원 서비스 등 수요자 지원 서비스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예산지원 필요

- (행사 개최) 장수 트레일레이스, 국제 생태관광 행사 개최 등 대규모 수요 유입이 가능한 생태관광 이벤트를 통해 전북 생태관광을 홍보하고,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

○ (거버넌스 체계 플러스) 전문가 참여형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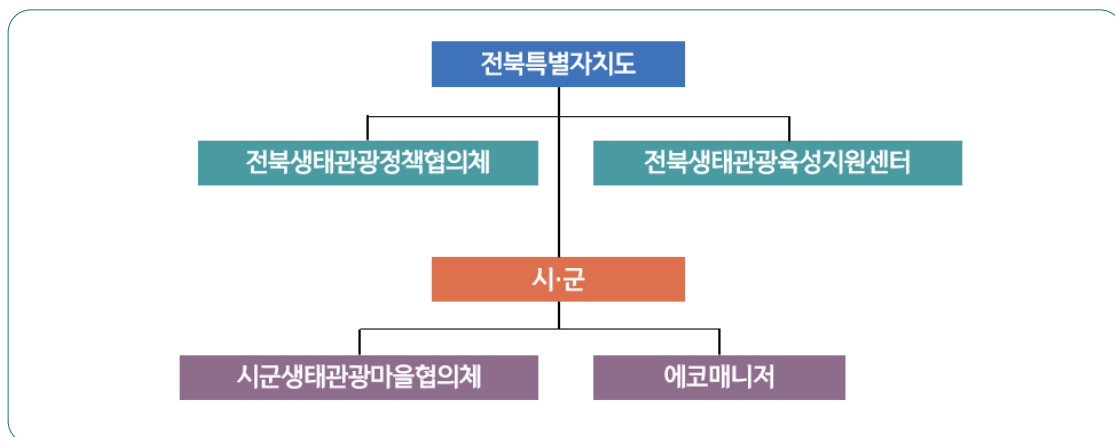
- (정책 전문성 및 일관성 강화) 정책수립 단계부터 현장 사업 컨설팅까지 거버넌스, 생태관광, 환경, 문화 등 분야 전문가의 체계적인 참여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

- (수평적 연계 강화)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센터가 단순한 상하 전달 조직이 아닌 지역의 필요와 한계를 진단하고 맞춤형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 수행

- (지역 자생력 확보) 마을협의체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가 코칭과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업 운영 역량강화로 전북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

- (전문가 참여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) 전북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3단계의 다층적 정책 결정 및 실행체계 구축

거버넌스단계	제안명칭	역할
제1층 (전략/정책)	전북생태관광정책협의체 (상위거버넌스)	• 장기 비전 및 정책 결정, 예산 및 주요 사업 조정·심의, 성과 평가 및 피드백(전문가 자문단)
제2층 (지원/운영)	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(중간지원조직)	• 실무 총괄 및 정책 지원, 시군 마을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, 전문 자문단 운영 및 연계
제3층 (실행/현장)	시군생태관광마을협의체 (현장실행주체)	• 현장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, 생태자원 보전 활동, 관광객 관리, 센터 및 시군과의 상시 소통



- (통합 브랜드 플러스) 전북 생태관광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춘 특화된 통합 브랜드를 구축·추진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전북형 생태경제 창출에 기여
 - (브랜드 경쟁력 및 차별성 확보) 전북만의 '생물문화 다양성'이라는 고유 가치를 확보하여 타 지역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구축하고,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
 - (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) 통합브랜드 및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 수익이 지역 주민 소득 증대로 직결되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정착
 - (정책 및 거버넌스 통합 시너지) 통합브랜드와 슬로건 하에 전북자치도, 시군, 센터, 마을협의체 간의 정책 및 마케팅 목표를 일치시켜 거버넌스의 실행력 강화

〈표 4〉 전북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전략

통합 브랜드 전략	세부 추진 내용
통합 BI & 슬로건 개발	•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슬로건과 로고를 개발하고, 모든 생태관광 홍보물·웹사이트·앱 등에 이 BI를 적용
권역별 서브브랜드 체계화	• 해양·갯벌권(서해권) / 산림·치유권(산악권) / 농생태권(내륙·농촌권) 등으로 권역을 구분하고, 각 권역별 서브브랜드를 통합BI 하단에 배치해 특성과 통일성 확보
통합 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운영	• 기존 '초록원정대'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통합 예약·정보 플랫폼 구축. 센터 주도로 시군, 마을협의체의 콘텐츠를 연계한 통합 디지털 마케팅 수행
콘텐츠 융복합 상품화	• 전북의 우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역사, 문화, 미식(슬로우푸드)을 결합한 '생물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' 개발
지역 연계 비즈니스 개발	• 마을협의체와 연계하여 먹거리, 공예품, 기념품(굿즈) 등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연계 비즈니스 모델을 필수적으로 구축

참고문헌

전북특별자치도. (2024). 전북특별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, 최종보고서.

전북특별자치도. (2024). 에코힐링 1번지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+ 기본계획('25~'34)

천정윤·김보국·배진아. (2024).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. 전북연구원.

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: 인제 생태마을(옹늑)<http://www.eco-tour.kr/front/tour/choice/detail/23>

Get Your Guide, 라플란드: 사미족 원주민의 흔적을 따라 걷는 하루<https://www.getyourguide.com/ko-kr/sorsele-l201415/lapland-a-day-on-the-trail-of-the-sami-indigenous-people-t648044/>

투데이안, [기획특집] 완주군, BTS의 발자취를 따라 조선의 서사를 걷다<https://www.todaya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90445>

iSSUE BRIEFING

vol.330



발행인_전북연구원장 발행처_전북연구원

※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※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(www.jthink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